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 31일 팡파르

# 어렵고 지루한 발레 No!... 대중에 다가온 '모두의 축제'

기자간담회

스타무용수·안무가 총 출동  
10개 단체서 10개 작품 공연

김용걸 신작 'The type B' 선봬  
국립·유니버설 발레단도 무대위



대한민국발레축제 포스터. /예술의전당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인자 조직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가 무용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발레는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말은 옛말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16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파르트홀에서는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박인자 조직위원장 겸 예술감독을 비롯해 기획에 참여한 안무가 윤전일, 임혜경, 최진수, 김세연, 김용걸, 정형일, 김지안, 김성민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에는 총 10개의 단체가 참여해 10개의 작품이 공연된다. 클래식 발레부터 독창적인 모던 발레까지, 스타무용수와 안무가들이 총출동해 기대감을 높인다.

이날 박인자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 발레축제를 통해 발레가 대중 속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발레 문화가 많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아외공연을 많이 하려고 한다. 지나치다가 호기심이 생겨 발레에 입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도록, 보다 더 대중성을 펼 수 있게 무대를 꾸미려 한다"고 축제 방향에 대해 입을 열

었다. 대한민국발레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공연-김용걸·김세연

김용걸은 올해의 첫 신작 'The type B'를 선보인다. '본연의 나'를 주제로 다양한 생각들을 무대 위에 풀어낸다.

김용걸은 "가장 진심을 다해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했고, 발레 움직임의 테크닉도 타무용수의 인생도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을 주제로 선정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김세연은 올해 초 스페인 국립무용단과 마드리드에서 초연하여 극찬을 받은 'Triple Bach'를 재구성해 무대에 올린다. 하얀 도화지에 담긋 색을 칠하듯, 무용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펼치며 원 없이 춤출 수 있는 네오 클래식 작품으로, 군더더기 없는 클래식 동작부터

화려한 파르티링까지, 다양한 구성이 명쾌한 바흐의 음악 위에 그려진다.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기획공연은 5월 31일과 6월 1일, CJ 토월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 대표 발레단

국내 대표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은 각각 '안나 카레니나'와 '발레 춘향'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11월,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공연으로 '안나 카레니나' 공연을 올린 바 있는 국립발레단은 원작의 비극적인 운명과 사랑 이야기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초연보다 한층 더 깊어진 풍부한 연기를 선보일 전망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발레 춘향'은 1986년 탄생한 '심청'에 이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이자 두 번째 창작 발레이다.

유니버설발레단장은 "한국 고전에 차

이코프스키의 곡을 입혀서 만들었다. '한편 고전은 영원한 고전'임을 보여줄 것이다. 강단있는 여성상을 발레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술감독 유병현과 의상디자이너 이정우, 새로운 영상디자이너로 한층 더 세련되진 무대를 선보이며, 한 쪽의 동양화처럼 매혹적인 장면들을 연출한다. '발레 춘향'은 6월 9일, 10일 CJ 토월극장에서, '안나 카레니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남녀 안무가가 한 무대에!

올해 공모로 선정된 작품들 모두 남녀 안무가의 조합이 특징이다. 차진엽-정형일, 김지안-김성민, 임혜경-윤전일의 안무작이 한 무대에 오른다.

안데르센 원작 동화를 재해석한 서울발레시어터의 '빨간구두-영원의 춤'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안무감독으

로 주목받았던 안무가 차진엽, 음악감독 최우정, 그리고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27인조)가 협업한다.

2014년 이후, 오랜만에 발레축제를 찾은 정형일은 300년 발레 역사에 일곱 번째 포지션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정형일은 "움직임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무대라 내용은 없다. 다만, 인간이 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고뇌를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지안 발레단은 '윤이상의 귀향'을 선보인다. 천재적 작곡가로서의 윤이상의 모습부터 인간 윤이상의 면면들까지 그의 명곡 위에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그밖에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은 'Combination 2'를, 임혜경은 '이야기가 있는 발레'를, 윤전일 안무가는 '사랑에 미치다'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다양한 부대행사 또한 발레축제의 큰 자랑거리다. 매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발레 체험 클래스가 레벨을 세분화한 발레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된다. 최근 KBS 백조클럽의 예술감독으로도 활약한 프리마 발레리나 김주원이 성인 고급 클래스를, 안무가로도 발레축제에 참가하는 전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 윤전일이 성인 초중급 클래스를 맡는다. 6월 2일과 6일에는 예술의전당 곳곳에서 발레무용수와 사진을 찍는 이벤트도 열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여행욕구 자극... 영상미 넘치는 '영화 속 도시'

- 윈더스트릭**  
흑과 백·색채 공존 뉴욕 그려
-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포도 익는 부르고뉴 세계절 담아
- 트립 투 스페인**  
감성 가득 스페인 소도시에 집중

놀라운 비밀을 찾아 떠나는 환상적인 여행을 그린 영화다.

'개골'로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토드 헤인즈 감독과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진이 합세한, 그야말로 매혹적인 작품. 특히 과거의 뉴욕을 완벽하게 재현해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1920년대 로즈의 이야기는 흑백의 무성 영화로, 우연한 사고로 청각을 잃은 1970년대 벤의 이야기는 컬러로 그려내면서 흑과 백, 색채가 공존하는 뉴욕을 보여준다.

줄리안 무어, 미셸 윌리엄스와 더불어 천재 아역배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밀리센트 시몬스와 오크스 페글리가 놀라

운 연기를 펼쳤으며, 감성 아트버스터로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개봉한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은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진 부르고뉴 와이너리에서 다 함께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힐링 드라마다.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부르고뉴의 세계절을 아름답게 담아내 프랑스판 '리틀 포레스트'로 불리며 주목 받았다. 더불어 프랑스의 최상급 와인을 제작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담겨 있어 특별한 일탈을 꿈꾸는 관객들의 여행 심리를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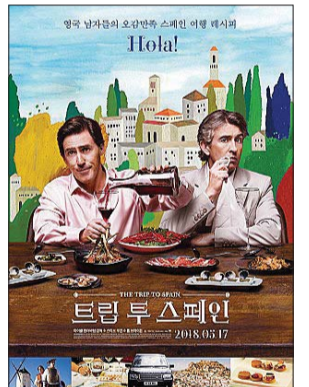
영국 대표 배우 스티브 쿠킨과 톱 브라이든이 스페인 전역을 여행하며 음식과



윈더스트릭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트립 투 스페인

/네이버 영화

인생, 사랑에 대한 유쾌한 수다를 펼치는 신개념 인텔리전트 미식여행기 '트립 투 스페인'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해당 작품은 스페인 여행 가이드 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성 가득한 스페인의 구석구석을 보여준다. 특히 맛있는 음식과 절경이 일품인 항구 도시

산탄데르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 예술, 문학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두 남자의 유쾌한 대화 속에 담아냈다. 국내 관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에 집중해 색다른 스페인 여행을 원하는 관객들에게 최고의 여행 팁을 선사할 예정이다. 17일 개봉.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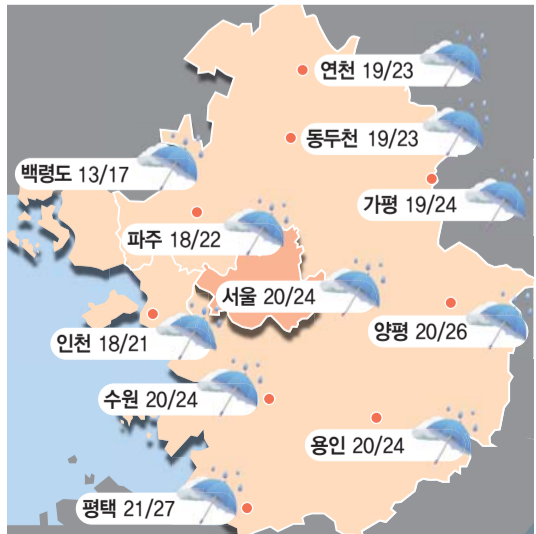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2 | 해질 / 19:36

5월 17일  
음력: 4월 3일

수도권 날씨  
24~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박지성이 배성재(사진) 아나운서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SBS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표팀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다.



▲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6월 18일 오후 9시에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첫 경기 스웨덴전에서 필 선수 23명을 공개했다.

▲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상대로 킥오프 1분 만에 벼락골을 터뜨린 김승대(포항)가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1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 한국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 브리스틀 시티와의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어시스트 하는 등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 프로농구 KBL 제10대 총재로 선임된 이정대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이 '농구 인기 부활'을 기치로 내걸었다.

▲ 여자프로배구 KGC인삼공사가 레프트 최은지와 연봉 8000만원에 FA계약을 체결했다.

▲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바르셀로나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면 FC바르셀로나에는 끔찍한 일이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